



2020년은 베리베리의 해 그룹 베리베리가 7일 서울 광진구 에스24라이브홀에서 세 번째 미니앨범 '페이스 미'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화려한 '칼 군무'를 펼치고 있다. 베리베리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청춘 연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프듀 조작 논란' 엑스원 해체했는데, 아이즈원은 활동 재개 긍정적 검토?

계산기만 두드리는 CJ ENM

혼란 가장 생각않고 이익만 좇아 세무적 피해 보상안도 마련 안해 소속사 "무슨 명분으로 활동하나"

'빌보드 진입' '활동기간 5년'...

장밋빛 미래는 결국 꺾이됐다. "세계를 놀라게 할 글로벌 아이돌의 탄생"이라며 원대한 포부를 안고 출발한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이 데뷔 4개월 만에 해체됐다. 지난해 8월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X101'을 통해 결성된 엑스원이 '조작 논란'으로 '치욕'의 시간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태의 책임자인 CJ ENM 측은 "엑스원의 활동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해체를 결정한 소속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한편 같은 논란에 휩싸인 '프로듀스48' 출신 아이즈원의 "활동 재개를 긍정 검토하겠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피해 보상은 어떻게?

사실 CJ ENM 측이 조작 논란 직후 "국민프로듀서들과 약속"이라며 엑스원의 데뷔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사태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멤버들은 첫발도 제대로 떼보지 못한 채



'프로듀스48'을 통해 배출된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 일본에서도 입지를 구축한 이들은 음반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지만, 나란히 조작 논란에 휘말린 엑스원의 그룹 해체 선언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스

'조작 멤버' '조작 그룹'이라는 의심과 오명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해체 결정 이후 일부 멤버들이 오히려 SNS를 통해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CJ ENM 측은 출연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피해 보상안 등 이렇다 할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들도 피해자다. 시청자들은 '픽'한 후보들이 최종 그룹 멤버로 발탁되도록 유료 투표 문자로 응원했다. 최근 검찰은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안준영 PD 등을 구속기소

하면서 "CJ ENM이 엑스원과 아이즈원을 통해 거둬들인 유료 투표 수익금만 1억2500만원"이라고 공식장에 적었다. 신용용 CJ ENM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시청자들도 문자 투표를 통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면 환불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엑스원의 공식 팬클럽 회원 가입비(3만4000원)도 확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모두 돌려줄 계획이다.

● 엑스원은 해체, 아이즈원은?

이제 엑스원 멤버들은 아픔을 뒤로 하고 원 소속사로 돌아간다. 9명의 멤버 모

두가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거나 기성 그룹의 멤버들이다. 방송을 통해 멤버별로 어느 정도 팬덤도 확보해 정식 데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멤버들은 개개인의 특장을 살려 솔로나 소속 그룹 합류, 연기자 등으로 새 출발한다.

CJ ENM 측은 '프로듀스48' 출신 아이즈원의 활동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아이즈원은 전용극장에서 상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일본그룹 AKB48의 시스템을 적용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한국인 멤버 9명과 일본인 멤버 3명으로 이뤄졌다. CJ ENM 측은 2018년 데뷔 이후 팬덤을 형성했고, 일본에서도 입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활동 재개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모으고 있다. '프로듀스' 전 시즌에서 제작진의 투표 결과 조작 혐의가 드러난 만큼 엑스원만 해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멤버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7일 "엑스원도 해체했는데 아이즈원이 무슨 명분으로 활동하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활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CJ ENM과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 조만간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연예뉴스 HOT 4

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 분쟁 끝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겪은 끝에 신세계가 이를 포기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한 'BTSBACKTOSCHOOL'이라는 상표를 사들인 뒤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해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7일 이를 포기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KBS-팬엔터 '동백꽃' 수익금 배분 갈등

작년 11월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방송사 KBS가 갈등을 빚고 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7일 "KBS와 저작권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110억원의 제작비를 모두 부담했으나 KBS가 발생 수익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KBS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KBS는 "제작 계약과 관련해 상호 성실히 협의했지만 최종 서명 단계에서 제작사가 합의를 반복했다"고 맞섰다.

양준일 "운영자 실수 이해해 달라"



양준일

가수 양준일이 팬카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은 6일 밤 SNS에 "누구나 실수를 한다. 우리가 실수를 넘어 그 진심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운영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부디 이해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5일 양준일의 최대 팬카페 '판타지이'가 운영자와 일부 팬 사이의 마찰로 폐쇄돼 논란을 불렀다. 운영자는 6일 오후 "미숙한 운영으로 발생한 실수"라며 사과하고 팬카페를 다시 열었다.

주진모, 후대전화 해킹 강력대응 예고



주진모

연기자 주진모가 최근 후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7일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최근 주진모의 개인 휴대전화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았다. (가해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빈·손예진 '설 설 설'... "너무 진짜 같았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연기 호흡 "SNS 결혼설·결별설, 당황스럽다"



현빈, 손예진

드라마 속 달콤하고 애절한 사랑 연기가 빛낸 혼동일까. 연기자 현빈과 손예진이 결혼설과 결별설에 동시에 휘말리는 해프닝을 겪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SNS다. 어김없이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 중인 tvN '사랑의 불시착'의 주연 현빈과 손예진이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드라마를 끝내고 결혼을 발표한다' '사귀다 헤어졌다' 등 내용이 뒤섞인 각종 SNS '설'에 시달렸다. 이에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와 손예진의 엠에스엔터테인먼트는 7일 "사실이 아니다"며 "사귀지도 않았는데 결별설이라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2년생 동갑내기인 현빈과 손예진은 2018년 영화 '협상'으로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1월 두 차례 열애설에 휘말렸다. 미국 동반여행으로 관심의 시선을 받았지만 '친구 사이'일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못 박

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사랑의 불시착'에 나서 더 큰 화제를 모았다. 현재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에 한창이라 관련 소문을 의식할 겨를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중 위기에 처한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친한 친구'라는 설명처럼 지난해 12월 14일 방송을 시작한 이후 매회 '달달한' 호흡을 자랑하는 덕분이다. 특히 남녀 주인공의 '화학작용'이 단연 중요한 멜로 장르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애뜻하면서도 달콤한 호흡이 시청자의 시선을 빨아들인다. 이에 힘입어 최근 방송분인 12월 29일 9.2%(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한 뒤 7·8회를 방송하는 11일과 12일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골든글로브 영예 '기생충'은 계속 달린다

19일까지 美 각종 시상식 참여 내달 2일 아카데미도 큰 기대감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7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송강호, 봉준호 감독, 박신애 제작자, 이정은, 한진원 작가(왼쪽부터).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영화상을 거머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주연 송강호 등 배우들이 현지 또 다른 주요 영화 시상식에 참석하며 실 틈 없이 내달린다. 또 '기생충'은 영국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 부문에 후보로 오르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이정은 등 '기생충'팀은 6일(이하 한국시간)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후 8일 전미비평가협회와 뉴욕영화평론가협회, 11일 LA비평가협회 시상식에 나선다. 이후 12일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가 여는 크리티크스 초이스와 19일 미국배우조합 시상식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기생충'은 이미 전미비평가협회와 뉴욕비평가협회가 주는 작품상과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등 수상작이 됐다. 또 LA비평가협회의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송강호)을 받았다. 크리스티크 초이스에는 작품상 및 각본상, 미술상, 외국어영화상 등 무려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기생충'팀은 예정된 시상식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기생충'은 영국 아카데미상의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4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이번 시상식에서 특히 작품상 후보로 지명되면서 수상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영화는 2018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상식은 2월 2일 열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백민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